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2남, 3·4여선교회 주관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6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김범진 집사님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제3기 동호회가 6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갑을관계, 갑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을을 생각 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횡포가 되지 않도록 늘 인식하며 사십시오.

왕상 18:20~39 / 시 96
갈 1:1~12 / 록 7:1~10

시 62편

식 당 봉 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근혜 박재란 이재문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이수정 권현숙 홍주희 이소순 임주빈
오늘설거지봉사: 서안나 국지연 김용규 송 명
다음 주 설거지: 최미자 한인철 조운숙
새 교 우 : 임성은 박진숙 김상진 박지연 황재모 강지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내려놓고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감사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만의 행복에 쉽게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큰 희생을 치르며 지켜온 이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고숙이 광상준 최경미 권미정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범진 김미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정진 김지윤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김희진
 박홍재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옥순 방문성 박혜경 배부례 배삼순
 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세희 오규만 오자영 왕수명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동천 이봉옥 이용현 이종배 고정림
 이지훈 임고운 임수진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한구 왕영순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양순 최은미 최종원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허신열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LK 무명2

감사헌금

광상준 최경미 권미정 김만균 노성희 김재광 박병구 배삼순 오미경
 이봉옥 이용현 이인태 이재문 정선희 정현모 권정연 최숙화 김정길
 최종원 나오미1,2선교회 무명7

생일감사헌금 박옥순 송형운

녹색꿈헌금 강영님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정민 문금석
 송형철 원주신 윤경이 윤정덕 최미자 추현영 무명5

장	혜	숙	백	혜	숙	조	순	덕	정	두	리
노	순	옥	박	성	희	김	미	순	노	순	옥
김	재	흥	최	경	미	야	외			심	
장	영	숙	신	영	신	장	영	숙	박	정	숙
정	경	례	진	정	숙	진	정	숙	김	혜	권
박	홍	재	곽	권	희	조	영	순	박	홍	재
권	미	숙	박	미	영	박	효	선	박	미	영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이	순	정
이	형	숙	윤	수	진	김	필	순	윤	미	경
안	홍	숙	오	현	정	이	수	정	윤	정	현
정	영	선	서	정	순	서	정	순	김	희	우
박	혜	경	조	향	미	최	영	혜	박	혜	경
김	재	흥	오	자	영						
이	범	석	이	근	식						
신	진	식	곽	상	준						
장	영	숙	김	세	진						

마음으로 읽는 글

왼손의 쓸모

보통 때는 잘 모른다

땅에 돈 떨어진 것 발견했을 때
 내가 내 떡살을 잡고 뒤흔들어 놓을 때
 참다 참다 말 안 듣는 자식 등짝 몇 대 후려칠 때
 망설일 것 없이 왼손이 스프링처럼 화 튀어나간다/
 아버지 앞에서 오른손 부들부들 떨며 숟가락질 배운 탓에
 ㄱ, ㄴ, ㄷ, ... 오른손 덜덜 떨며 완곡하게 구부려 쓴 탓에
 지금은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살지만/
 위기가 닥칠 때 맨손으로 버티는 것이 왼손의 근성이다
 유년 시절 한 봉지의 과자를 훔치던 손이 성공했더라면
 어느 하산 길 왼손이 나무뿌리 부여잡고 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내 생의 지도는 극도로 우회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른손은 왼손의 쓸모를 수시로 빌려 쓰고 있다
 바느질 할 때, 돈 셀 때, 생선지느러미 가위질 할 때, 친정 이불장 사이에
 봉투 찢어놓고 올 때
 왼손이라야 더 날렵하게 끝을 낸다

상처의 칼집인 왼손이
 생활의 현장 속으로 손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십 년 넘게 교육 한번 받지 않은 왼손이

- 김나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괴로움 속에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문제들 속에서 허덕일 뿐 그 문제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예배 2남, 34여선교회 주관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박숙영 선생 조문규 권사

6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박규석 강순배 정경례 박경선
	헌금위원	윤석철 김금순

믿음으로 읽는 글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이야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도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부터 옛날이야기를 좋아했다. 옛날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면, 어른들은 옛날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면 가난하다는데, 하고 걱정하시면서도 이야기보따리 풀어놓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할머니와 엄마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다.

나는 시골 농사꾼의 집에서 태어났다. 겨우겨우 먹고살 만큼의 논밭을 가진, 가난뱅이랄 것도 부자랄 것도 없는 집이었다. 일제하 식민지 시대가 아니었으면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꿈꾸었을 선비 집안이어서 아버지나 삼촌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다가도 밤에는 글 읽기를 즐겼다. 우리 집이 딴 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방에 책이 많다는 거였다. 어린 마음에 그게 나를 으쓱하게 했다. 그러나 요즈음의 책과는 거리가 먼, 한지에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들이었다.

마을은 논밭이 기름지고, 산은 골이 깊고 나무가 무성해서 온갖 짐승과 새들을 품고 깃들게 하는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짐승과 새뿐 아니라 나무와 꽃들까지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빗대서 할머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호랑이, 황소, 여우, 구렁이, 쥐, 두꺼비, 참새, 제비 등이 다들 할머니 이야기의 단골손님이었다. 할머니는 온갖 동물들을 자유자재로 부렸다.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가 우리 할머니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더러 겁이 나다가도, 문밖에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안 그치던 아이가 벽장 속에 곳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똑 그치는 걸 문밖에서 엿들은 호랑이가 곳감이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줄 알고 들입다 산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호랑이가 하나도 안 무서워졌다.

움직이는 짐승뿐 아니라 동네 어디서나 지천으로 볼 수 있는 봉숭아, 채송화, 머느리밥풀꽃, 금낭화, 분꽃, 붓꽃 등, 식물들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짐승과 새들, 나무와 꽃들과 생전 변하지 않는 친교를 맺을 수가 있었다. 그것들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원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착하게 굴면 잘되고 못되게 굴면 벌 받게 되어 있었다. 세상은 겉보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돌아가는 이치도 이렇듯 좋은 사람에게 더 친절하다는 믿음은 훗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할머니는 나의 사소한 질문에 대답할 때도 성의껏 이야기로 대신하셨다. 할머니는 푸성귀를 데치거나 국수를 삶고 난 더운물을 시궁창에 버릴 때도 반드시 큰 소리로 더운물 내려간다, 소리치고 나서 잠시 머뭇거린 후에 버리셨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여쭙보면 시궁창 바닥에 살고 있는 온갖 미물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미물 중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독종도 많다고 했다. 못된 독종 좀 죽으면 어때서라고 하면, 독종만 죽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죽을까 봐 그런다고 했다. 지렁이는 바보 같아도 그런 미물 독종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호랑이보다 더 힘이 셀 뿐 아니라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농사꾼들이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도망갈 시간을 주고 더운물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이 사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도리가 담겨 있었다.

엄마도 이야기를 잘하셨다. 할머니의 품을 떠나 서울로 와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책은 교과서가 다였고, 이야기에 대한 내 갈망은 할머니 대신 엄마가 채워주셨다. 엄마는 시집올 때 붓으로 손수 베껴 쓴 이야기 책 한 권짜이를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분이어서 『심청전』 『콩쥐 팥쥐』 로부터 『삼국지』 까지, 우리나라와 동양의 고전을 두루 엄마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렇듯 이야기가 풍부한 집안에서 태어난 걸 어떤 부잣집에 태어난 것보다 큰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서정주의 시에서 빌려다가 한마디 하자면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이야기였다. ...